

한-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,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

- KTX 도입 20년만에 2,700억원 규모 공급계약...해외진출 교두보 마련
-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('22.11) 논의 후 범정부 전방위 지원 성과
- 양국 간 교통 협력 약정 체결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도 확대

□ 우즈베키스탄 국민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,700억원 규모의 **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**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
-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-250* 42량(7량×6편성)으로,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-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(상업운행 250km/h)이다.

* U'zbekiston Temir Yo'llari(우즈베크 철도공사), Electric Multiple Unit(전기 동력분산식 열차)

□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,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,

-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, 태국,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.

- '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금융 지원을 건의하였고,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.

- 또한,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**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(Shavkat Mirziyoyev)**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, 고속도로 사업 등 **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.**
-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, 주변압기, 승객출입문 등 **전체 부품의 87%가 국내 생산품으로,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.**
- 또한,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, 인력양성, 차량 기지 건설 등 양국 간 **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**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**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(Arrangement)**을 체결하였다.
- 양국은 철도, 도로 등 인프라, 교통안전,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,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,
-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**타슈켄트-안디잔 고속도로(약 54억불)** 등 대규모 **교통 인프라 프로젝트**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박상우 장관은 “KTX 도입 20주년인 올해,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·노하우와 함께 정부,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**쾌거**”라고 강조하며,
- “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, 국가철도공단, 민간기업과 **총력 협력체제**를 구축하고, **고속철도 건설과 차량, 운영으로 이어지는 K-철도**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총괄>	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욱 (044-201-3528)
<철도>	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3947)

